



평양의 도시문화

— 평양과 평양시민의 삶—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요약: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정치적 상징도시로, 외부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며 북한의 체제변화 과정이 담긴 공간이다. 따라서 평양 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특징과 북한주민의 일상을 이해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양의 이야기를 평양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 및 평양 시민의 삶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평양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식량난에서 비롯된 배급제의 어려움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었으며, 외부와의 접촉 빈도가 높은 탓에 한류 등의 외부문화가 대거 유입되었고, 휴대전화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이념이 퇴색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시장이나 외부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평양시민들은 북한의 중심 집단으로서의 자부심도 여전하여서 최근의 변화가 당장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리라 예측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하지만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전례가 있듯이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한 체제에서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사상적 통합기제가 약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론

분단 이후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었지만, 주로 정치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인민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현장 연구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로서 북한의 정치적 상징이자, 북한체제의 변화가 농축된 공간이다. 따라서 평양 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분석하는 것은 평양에 대한 이해를 넘어 북한체제의 특징과 북한 주민의 일상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평양에 대한 이야기 방식

평양에 대한 남한의 관심이 조금씩 진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바탕에는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이 있었으며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을 통하여 평양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발달하면서 개인 컴퓨터에서도 손쉽게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지역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증가하면서 평양 출신들로부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평양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평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지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평양과 관련된 논의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 비판적 관점의 평양 관련 논의이다. 이 관점은 김일성 동상, 개선문 및 주체탑 등 평양에 집중된 ‘혁명적 조형물’을 집중적으로 언급한다.

둘째, 평양 방북기 혹은 평양 가이드와 같은 수준의 논의들이다. 이는 평양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공개되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셋째, 평양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흐름이다. 평양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기획된 도시로 학자들의 관심을 끌 만하였다. 그러나 도시 건설이나 건물의 건축과정에 대한 내적인 자료를 얻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도시와 도시 주민, 건축과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고 있다.

넷째,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평양을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서울과 비교하는 논의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관점은 분단 현실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문제제기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양 이야기는 다음의 몇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양의 안쪽에 대한 관심이다. 평양의 안쪽에 대한 관심은 외부와 다른 실제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와 더불어 세부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와 평양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계획되고 통제된 평양이 쾌적한 구조인 것은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경제난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도 적고 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도시와 같은 에너지 낭비적인 간판이나 조명도 거의 없다. 그러나 하수도 시설의 미비로 대동강의 수질이 형편없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고층 살림집(아파트)이 쾌적해 보이지만 엘리베이터가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평양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도시를 이해하려면 도시 사람들과 이들의 삶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들(학교, 시장, 주거지의 골목들, 탁아소, 공장, 관공서 건물, 공원, 스포츠센터, 공연장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평양을 구역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강남·북 정도의 차이는 아니지만 구시가지 동평양과 신시가지 서평양 지역도 차이가 나고 있다. 서평양 지역에서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개발이 본격화된 ‘창전거리’는 분위기가 색다르다. 구역별로 역사적 맥락이나 건축적 특성 그리고 공간의 활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중요하다.

넷째, 변화의 맥락에서 평양을 바라보는 것이다. 북한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의 변화는 가장 역동적이다. 최근에는 통일거리 시장을 방문하는 평양시민이 하루에 10만 명에 달할 정도이다. 통일거리의 시장과 더불어 지역에 들어서는 작은 규모의 시장들이 평양의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통일을 향해 남·북도시의 연결이라는 차원에서 평양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그려보는 것도 필요하다. 서울을 비롯한 유사 도시들과의 비교도 필요하고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시대 그리고 통일 시대에 평양이라는 도시가 한반도의 맥락에서 더 나아가 동북아차원에서 역할 수행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

평양 시민의 24시¹⁾

북한당국은 주민들이 새벽 6시에 일어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집 안 청소는 기본인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닦는 것부터 시작한다. 6시 30분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7시 30분 정도가 되면 각자 직장과 학교로 떠난다. 출근 후 20분간 또 아침 작업장 청소가 진행되고 7시 50분부터 약 10분간 독보모임을 가지게 된다. 독보모임은 당세포비서가 집행을 하는 데, 주로 노동신문이나 회상기, 덕성실기와 같은 교양도서들을 독보하거나 혹은 상급당지시나 준법교양자료들을 전달한다. 짧은 아침독보가 끝나면 그날 해야 할 업무들을 재정리하고 필요한 작업지시들을 시달하는 아침조회를 한다.

업무는 8시에 시작된다. 11시부터 25분 정도 모든 공장, 학교 일원들이 운동장이나 공터에 모여 업간체제나 울동체제, 태권도체제 등을 하면서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한다. 12시~1시는 점심시간이다. 1시부터 오후 작업이 시작되어 6시까지 일한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일 생산총화를 10분간 한다. 퇴근은 매우 자유로운데 전기절약 때문에 8시 이후에는 가급적 퇴근할 것을 권장한다. 전기가 거의 끊기는 북한에서 취침시간은 매우 빠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밤 11시에 거의 모든 가정은 잠이 든다. 여기에 정치생활, 조직생활이라는 추가적인 반복일과들이 있어 북한주민들은 불편을 겪는다. 정치조직생활은 북한주민들의 기본일과생활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배분되어 있어서 매일 1차례의 집체적인 정치조직 생활일과를 보내야 한다.

1) 평양거주 경험이 있는 탈북자 A, K와의 면접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하였음.

이외에 평양시민들만의 일과들이 있다. 평양에서만 진행되는 대규모 군중집회와 외국손님들을 위한 연도환영, 그리고 각종 국가적 명절일 전야의 중앙보고회, 기념행사들에 참석하는 것이다. 일례로 2월과 4월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기리는 국제적인 규모의 ‘김정일화 축전’, ‘4월의 봄 예술축전’, ‘2월 국제빙상대회’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행사만 해도 3~40개가 평양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데 여기 참석하는 것은 수도시민의 의무다. 특히 평양시민들에게 평양시 군중대회는 매우 특별하다.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가하는 ‘1호 행사’ 시에는 새벽 4시부터 행사장에 출입하기 위한 본인 신원확인 검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큰 정치행사들이 진행되기에 앞서 도로와 마을 등 도시미화사업은 빈번히 벌어진다. 가정에서는 유리창 닦기와 베란다 헛가루 칠은 매달 해야 할 정도이다.

이처럼 평양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평양시민들의 수고를 고려하여 평양시에서는 정치행사의 참석 여부에 따라 상품 구매권이나 고급식당 이용권, 문화유원지, 극장·영화관 관람 예비권 등을 격려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평양시 가정마다 행사참가용 부채, 지화꽃다발, 기발 등이 갖춰져 있고 행사용 의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일상이 매우 바쁜 수도에서 지내는 평양시민들이 내심으로는 불만이 있지만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도시가스료 밥을 짓고, 중앙난방을 사용하고 일정한 양의 부식품과 공업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만수대 TV’ 채널을 볼 수 있고, 문화휴식시설들이 있어 여가생활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양에는 대동강맥주라고 부르는 생맥주점

들이 구역마다 몇 개씩 있어 기다리는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친구나 직장동료들끼리 퇴근하면서 즐긴다. 그뿐만 아니라 창전, 광복거리, 경흥 등에 고급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지 못하더라도 돈만 있으면 가족과 친지들끼리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을 큰 낙으로 생각한다.

평양시민의 삶의 특징과 변화

사회주의체제는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가와 노동의 균형을 지향한다. 평양 인민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동체 중심의 일상이 보편적이다. 학교의 선택권은 물론 노동과 여가에도 공동체가 개입한다. 공동체 중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개인에 대한 규제를 동반한다. 또한 평양 인민들의 삶은 단조로우며, 상업지역이 없으며 여가도 다양하지 않다. 사회주의체제의 특



그림 1. 평양 통일거리 시장의 외경



그림 2. 평양 시내의 매대

사회주의체제는 경쟁을 지양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가와 노동의 균형을 지향한다. 평양 인민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어서 공동체 중심의 일상이 보편적이다. 학교의 선택권은 물론 노동과 여가에도 공동체가 개입한다. 공동체 중심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개인에 대한 규제를 동반한다. 또한 평양 인민들의 삶은 단조로우며, 상업지역이 없으며 여가도 다양하지 않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지 않으며, 직업과 주택 등 삶의 기본 요소들이 배급되기 때문에 부의 축적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평양 인민들의 삶의 특징의 하나는 이념적 삶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김일성 중심의 유일 지배체제 확립의 정당성을 위해 ‘교양’이라고 불리는 사상학습이 강조된다. 사회주의국가가 몰락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더 나아가 평양 인민들은 선택받은 집단으로서의 선민의식이 있다. 평양거주는 선망의 대상이다. 당국은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지역의 생활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거주 편의성도 좋다. 평양시민들은 다양한 군중대회 및 여타 행사 참여 의무가 부여되지만, 중요 정치행사에 참여 의무 역시 특권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의례는 통합을 증대시키므로 사회적 통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한 경향이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평양시민들의 삶도 바뀌었다. 특히 식량 부족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는 사회주의의 근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배급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이는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평양시민들은 평양시 낙랑구역에 2,000평 규모의 ‘통일거리시장’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평양에 40개 이상의 상설시장을 열었다(양문수, 2010). 규모가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매대’들과 작은 규모의



그림 3. 정치행사에 참여하는 평양시민 모습

노점상도 생겨날 정도의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평양시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시장화가 평양시민들에게 미친 가장 큰 변화는 이익 중시와 개인주의화다. 외부의 문화와의 접촉이 많은 점도 평양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평양은 외국공관을 포함하여 외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이다. 외국 사람이나 남한 주민들을 통하여 외부문화가 많이 전파되었다. 또한 경제난으로 북한 사람들의 외국 파견이 늘어났는데 이들은 외국을 왕래하면서 수입을 확대하였고 동시에 외부 문화를 유입하였다. 그 결과 평양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 문화’가 퍼졌다(김동완·박정란, 2011).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도 평양시민들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은 어렵지만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확산과 통제가 어려운 USB 등도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를 동반하고 있다. 여전히 북한의 통제기제가 작동하고 있지만 과거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결론

평양시민들의 일상이나 의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북한 당국은 시장이나 외부 문화의 유입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교육과 직장 등의 체제는 평양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양 시민들은 북한의 중심 집단으로서의 자부심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순적 결합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상 변화가 세대 간, 집단 간 차별을 보이며, 외부 문화가 더욱 급진적으로 유입되고 확산하는 경우 사회적 균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제3세계 사회에서 경험하였듯이 장기적으로는 개인주의화 되고 사상적 통합기제의 약화는 사회변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동완·박정란(2011), 『한류 북한을 흔들다: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의식 변화』, 서울: 늘품플러스.
- 양문수(2010),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 서울: 한울 아카데미.